

‘MBC 스트레이트’ 2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2021. 2. 23.

MBC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1일 방송에서 쿠팡이 속도에만 집착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빠른 서비스를 위해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대규모 고용과 투자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물류센터에만 약 1만2500명을 추가 채용했고,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는 등 근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업계 최초의 직고용, 택배분류 전담인력 고용, 주5일 52시간 근무, 현장 근로자 주식 부여 등 물류 업계의 근로 환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쿠팡은 대규모 추가 고용·자동화 설비 투자·전국 물류센터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보도에서는 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연출한 정황도 여럿 보입니다. 부여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아 8시간 일하는 동안 4번이나 업무가 전환됐으며, 관리자와 다투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가 “현장을 이탈할 때는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 표현을 마치 화장실에 갈 때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일반화하며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의 일부 내용은 당사와 소송 중인 상대방의 주장이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임에도 이에 대한 당사의 반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의 사실 왜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아울러 쿠팡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악의적 보도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이트 측 보도	반론
“전·현직 쿠팡 노동자들은 쉴 새 없이 스스로를 재촉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핵심은 'UPH'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UPH가 낮다는 이유로 개인을 공개 호출하거나 계약연장 등 채용에서 불이익을 준 바가 없음. 그럼에도 오해 불식을 위해 최근 개인별 UPH를 모든 시스템에서 제거함.
“직원들의 UPH 수치는 마치 성적표처럼 주기적으로 공지됩니다.”	현재 개인별 UPH는 모든 시스템에서 제거했음에도 보도에서는 2018년 자료와 2020년 9월 관리자의 단말기 촬영영상 등 과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쿠팡 측은 직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공정과 원하는 근무 시간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쿠팡은 먼저 이 직원에게 산재신청에 대한 안내를 했지만 본인이 이를 원치 않음. 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산재신청을 무마시키려고 회유한 것처럼 왜곡됐음. 특히 이 직원은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함.
“산재신청을 했다고 해고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일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임
(아니 노동자가 일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얘기도 드려야 돼요?) "보고는 해야죠. 현장을 이탈하실 때는."	화장실 사용에는 어떤 제약도 없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됨. 관리자가 화장실 사용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무단이탈에 관한 대화 과정에서 화장실 문제인 것으로 왜곡.
“사망자가 발생한 덕평, 동탄, 인천, 칠곡 물류센터의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지난해 77건에 달했습니다.”	쿠팡은 야간 근무의 특성상 근로자 안전을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119에 신고하고 있으며 개인 지병으로 인한 119 출동도 포함되어 있음.
“밥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응성응성거려요. 가보면 쓰러져 계세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는 직원 영상을 의도적으로 삽입해 마치 과로로 인한 것처럼 왜곡함. 영상 속 당사자는 빈혈로 쓰러져 119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당사자와 부모님도 지병 사실을 확인함.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가더니 일을 시작합니다.”	쿠팡은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녁 식사를 3개 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작업을 시작한 인원은 1시간의 저녁 시간을 이미 마친 분들임.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기기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작업에 시달려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동식 에어컨과 서큘레이터가 곳곳 비치돼 있음. 물류센터 중 선풍기를 설치한 곳은 쿠팡뿐이라는 사실이 2월 22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확인됨.
“지난해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관리자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물류센터 직원 1만2500명 추가 고용, 혁신적 기술 및 대규모 설비 투자로 근로 강도 줄임.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 방식이 일용직과 계약직 중심” “이른바 '비정규직' 직원이 95%나 됩니다.”	잡입 촬영이 이뤄진 곳이 신규 물류센터라 일시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상시직을 권유하고 있으며, 재계약 비율 역시 80% 이상임.

저희는 쿠팡을 아껴주시는 고객분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